

한국어촌어항협회 고객제안 공모전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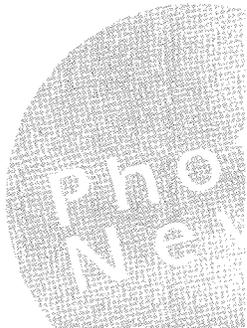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형 여행상품 프로모션”이 최우수상

한국어촌어항협회는 3월 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고객제안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전국 각지에서 총 70여 점의 제안이 출품된 가운데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 등 총 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형 여행상품 프로모션”을 제안한 김 솔씨가 차지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은 발굴된 제안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들이 만족하고, 고객들이 만들어가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바다·어촌 관광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고취하고, 어항관련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어항·어장의 정화활동 향상 등 협회의 업무 역량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했다.





한국어촌어향협회 도서어린이 초청 문화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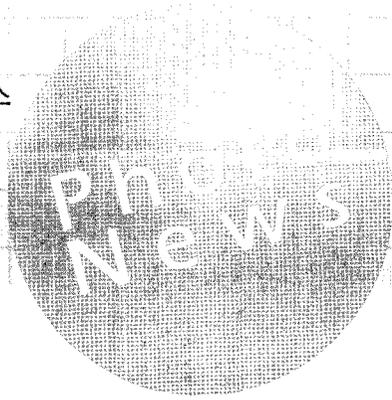
도시문화체험 및 현장학습의 장 제공

한국어촌어향협회는 3월 11, 12 양일간 당진군 난지도 소재 삼봉초등학교 난지분교 전교생 11명을 초청, '도서어린이 초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서지역 어린이에게 도시문화 체험 및 현장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마련되었다.

난지분교 어린이들은 11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과천 서울랜드를 관람했으며, 12일 광화문광장, 청계천,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강유람선 승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심호진 회장은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견문을 넓히고 미래의 꿈을 키워 밝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5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시상식

대상에 강원 속초 장사마을 등 10개 마을 수상

제5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시상식이 3월 1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어촌체험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모든 어촌체험마을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5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 참가한 10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성공사례 발표회, 3차 현지심사를 통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특화된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여타마을에 모범이 된 10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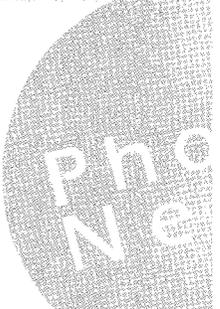
수상마을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상으로 대상 1억원, 최우수상 6,000만원, 우수상 3,000만원, 한국어촌어항협회장상으로 장려상 1,500만원이 마을발전 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마을 성공사례 발표회에 참여한 마을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지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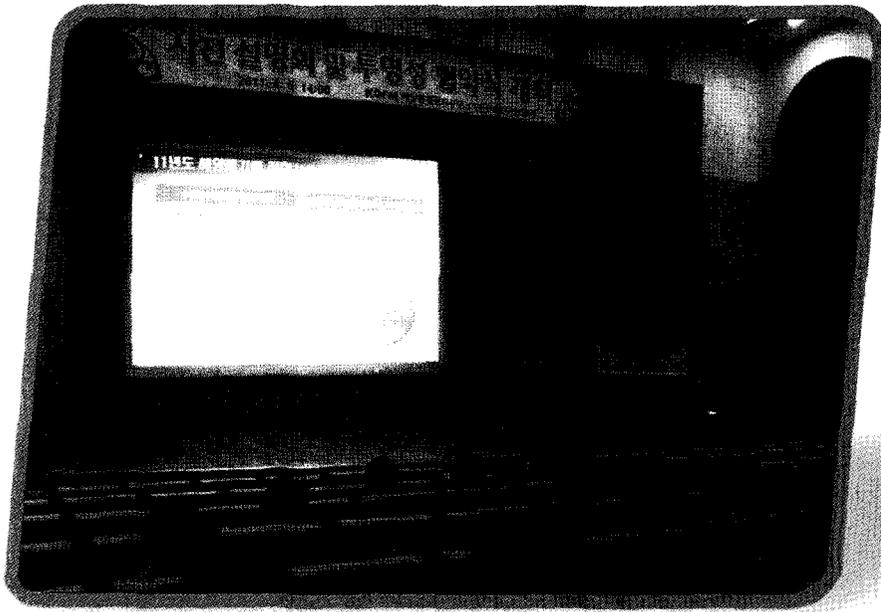
농림수산물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 참가한 10개 마을의 성공사례를 다른 마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로 발간·배포하였다.

- *대 상 : 강원 속초 장사마을 (농림수산물부장관상)
- *최우수상 : 경남 거제 계도마을 (농림수산물부장관상)
전남 진도 접도마을 (농림수산물부장관상)
- *우 수 상 : 경남 남해 은점마을 (농림수산물부장관상)
강원 고성 초도마을 (농림수산물부장관상)
- *장 려 상 : 충남 태안 대야도마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상)
전남 고흥 안남마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상)
전남 보성 선소마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상)
경남 통영 연명마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상)
제주 서귀포 사계마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상)



◀ 안남어촌체험마을에 장려상을 수여하고 있는 심호진 회장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투명성 협약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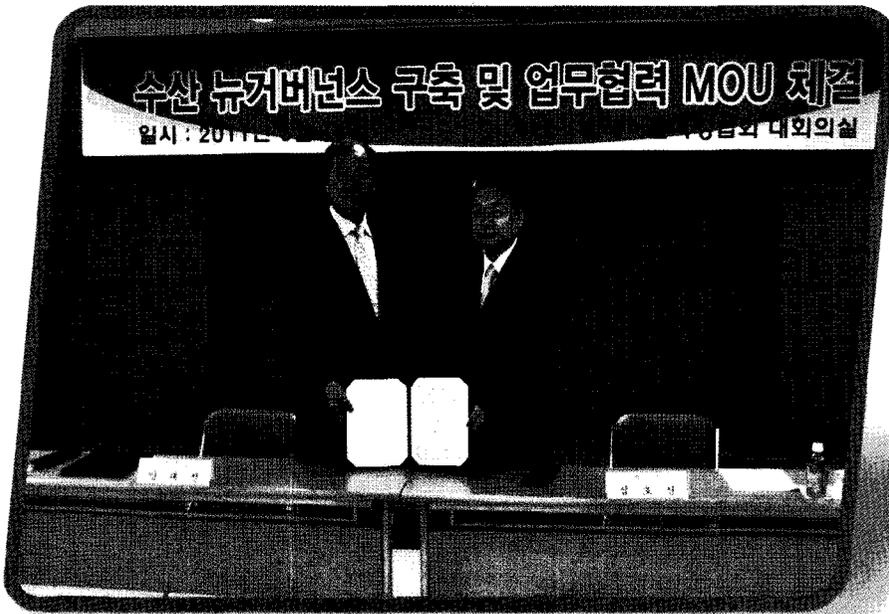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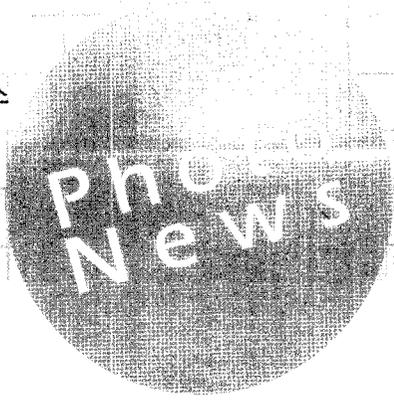
한국어촌어항협회는 4월 6일 부산 해양환경개발교육원 강당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전설명회 및 투명성 협약식을 30여개 협력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참여하는 실시설계업체와 해양폐기물수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공정한 사업수행을 위한 투명성 협약 체결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동안 협력업체의 경우 정부사업 추진계획의 정보 부족으로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업체간 의사소통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정화사업계획·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사업관련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 모니터단을 통한 사업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심호진 회장은 이번 투명성 협약식을 통해 부패없는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은 물론 협회와 협력업체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협조 활성화와 함께 동반성장의 기반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심호진 회장(사진 右)과 양태선 이사장(사진 左)

한국어촌어향협회 수산자원사업단과 양해각서(MOU) 체결 수산분야 뉴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한국어촌어향협회(회장 심호진)는 3월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수산자원사업단(이사장 양태선)과 수산분야 뉴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간 어장환경개선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연구, 사후관리, 국제협력, 신 성장산업 개발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기술·지식 정보 및 역량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여 미래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천년의 맛! 세계의 자랑!

대게고을 영덕 대게천지 한마당

영덕 대게축제, 외국인 유학생들 초청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 중인 바다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은 지난 3월 12, 13 양일간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 축제인 '제14회 영덕대게축제'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수산물과 어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참가단은 농림수산물부와 마사회의 지원을 통해 영남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19개국 다양한 유학생들이 함께 하였다.

참가단은 요트 승선, 대게낚시 체험 등 독특한 영덕대게 축제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대게원조마을인 경정 2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숙박과 함께 대게파티를 열어주어 짧게나마 한국의 어촌을 경험하고 어민들과 정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어촌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관람을 포함해 영덕 해맞이공원, 풍력발전소 견학 등 지역관광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의 전통과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축제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황금영덕대게 낚시체험'과 '영덕대게 깜짝경매' 등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등으로 내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도 대표적인 체험형 축제로 자리잡았다.



◀ 축제에 참석한 19개국 유학생들

▼ 대게낚시체험

